

강진군, 한국여행발전협회 초청 팸투어 추진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성공 위한 특색있는 여행상품 개발 예정 “농촌 고정관념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초점”

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바다)은 강진군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홍보, 여행상품 개발을 추진할 한국여행발전협회를 초대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관광객 500만 명 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행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 지구투어, 아름여행사, 제주 퍼시픽 투어 등 33개 여행사의 대표와 실무진이 참여했다.

첫째날은 강진군과 (사)한국여행발전협회의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정약응이 강진에 유배됐을 때 경세유표 등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며 4년 동안 기거한 사의재를 방문했다. 또

강진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에서 모노레일, 줏트랙 등 해양레저 체험을 즐겼다.

둘째날은 남해안 하구의 최대 생물 다양성이 숨 쉬는 강진만생태공원 탐방을 시작으로 호남의 3대 정원 중에 하나인 백운동원림과 강진다원 산책을 즐겼다. 마지막으로 웅장한 월출산과 어우러진 월남사지 3층 석탑을 방문해 이틀간의 팸투어 일정을 종료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행복을 주는 사람들’ 박주석 이사는 “강진군이 농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남 지



역 관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강진군 관광지의 상품성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바다 대표이사는 “관광객 500만 명 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차별화된 관광지 소개

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이색적인 관광여행 상품을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군민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 다져

완도군에서는 군민 청렴 의식 고취 및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부패 없는 완도를 만들고자 ‘찾아가는 군민 청렴 교육’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군민 청렴 교육’은 지난 7월 15일부터 청산면을 시작으로 소안면, 금당면, 노화읍, 보길면, 생일면, 금일읍,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의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12개 읍면 중 9읍면과 약산면 교육은 연기됐다.

서상일 급곡서당 훈장(다산수원원 교수)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완도 역사와 청렴, 군민 리더’라는 주제로 청렴의 중요성과 군민의 리더로서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했던 한 군민은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청렴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활력이 넘치는 ‘훈민정음 노래교실’ 운영

장흥군 장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코로나19방역수칙 준수 아래, 지역 어르신 85명을 대상으로 훈민정음 노래교실을 운영했다. 훈민정음 노래교실은 면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유금렬 군의원 및 장동면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노래교실 및 웃음치료 강의 등 어르신들의 육체 및 정신적 이완의 기회를 제공할 프로그램들로 구성·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제1회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 개최

총상금 770만원·천연기념물 진도개 우수성 콘텐츠 발굴...8월말까지 접수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소재로 한 ‘제1회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을 진도군이 개최한다.

진도개의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반영하고 진도개의 이미지와 우수성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오는 8월 31일(수)까지 접수 받

는다.

발표는 9월말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 작품은 금상 100만원(1명), 은상 각 50만원(2명), 동상 각 30만원(3명), 장려 각 20만원(4명), 입선 각 10만원(40명) 등 총 상금 770만원을 진도군수 상장과 함께 전달한다.

진도군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1인당 4점으로 제한한다.

수상작은 진도개 행사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맥콜원료 ‘유기농 곁보리’ 계약재배 물량 수매

지난 7월 29일 전국 최대 유기농단지로 알려진 신전면 밭정들에서 동계작물로 재배한 유기농 곁보리 계약재배 물량을 농가로부터 수매해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

겨울철 가뭄으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적은 120톤이며, 가격은 지난해 같이 kg 당 1,425원(40kg/57,000원, 1등급 기준)이다. 신전면 지역 8농가가 재배했으며, 수매가완료된 물량은 영동농장 저온창고에 보관 후 (주)티케이푸드에서 선별과 볶음 과정을 거쳐 (주)일화에 맥콜 원료로 공급하게 된다.

강진군 유기농 곁보리 계약재배는 보리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동절기 소득 창출을 위해 2008년부터 (주)일화와 유기농 곁보리 계약재배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50ha 면적의 유기농 곁보리를 재배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땅끝바다의 여름이 즐겁다” 해남군 송호해변축제 성황

해변콘서트 등 땅끝바다의 낭만 수놓으며 여름밤 달구



땅끝바다의 낭만을 가득 담은 해남 송호해변축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남군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땅끝마을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2022 해변축제를 개최했다.

무더위와 간헐적인 비속에서도 전국에서 해남을 찾은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어우러져 땅끝해남의 해변을 화려하게 물들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땅끝해남 송호해변축제는 29일에는 ‘땅끝 송호해변가요제’가 열렸으며, 30일에는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땅끝 송호해변 콘서트’가 진행됐다.

현장에선 등을 거쳐 13명이 본선에 출전한 가요제에서는 광주에서 참가한 이진성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30일 열린 해변콘서트는 진성, 박군, 김다현을 비롯한 축하가수의 무대와 함께 화려한 해상 불꽃쇼가 여름밤을 수놓았다.

어린이 물놀이를 위한 에어폴장 운영과 해변 연날리기 시연, 모래조각 체험과 수상레저 체험 등 인기만점의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성황을 이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땅끝송호해변 여름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올 여름 땅끝해남에서 무더위를 날려 보내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 송호해수욕장과 사구미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개장한다.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